

〈명주기봉〉 이본 연구*

- 고대본 〈명주기봉〉을 중심으로 -

최수현**

— <차 례> —

1. 서론
2. 고대본 〈명주기봉〉의 서지 검토
3. 고대본 〈명주기봉〉의 변화 양상
4. 고대본 〈명주기봉〉 변화의 특징
5.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명주기봉〉의 이본 중 하나인 고대본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대본은 〈명주기봉〉의 완질 이본 2종 가운데 하나로, 또 다른 완질본인 장서각본에 비해 전체 분량이 78%에 해당할 정도로 생략과 축약이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생략과 축약이 특정 사건이나 장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고대본의 변화양상이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결과임을 알게 한다. 아울러 고대본은 장서각본과 동일한 내용을 담아내더라도 자구에 변화를 상당수 많이 주고 있는 이본임이 확인된다. 이와 함께 고대본은 서지적인 특징으로 미루어보아 세책필사본으로, 종로 수문동을 중심으로 향유가 이루어진 작품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고대본의 특징에 관한 논의는 이 작품의 향유의 구체적인 실상을 알아볼 수 있게 한다는 점과 현재 낙질로 전하는 이 작품의 24종의 이본들의 계열을 살펴볼 때 준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8018245). 논문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심사 과정을 통해 조언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세명대학교 교양과정부 조교수.

주제어 <명주기봉>, <현씨양웅쌍링기>, 이본(異本), 국문장편소설, 생략, 축약, 세책필사본

1. 서론

조선후기 널리 읽힌 고소설은 현재 다양한 형태의 이본(異本)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이본의 존재는 작품의 향유 방식이나 향유했던 이들이 매료되었던 이야기의 구체적 형태를 가늠하게 해주어 독서가 이루어졌던 상황을 재구하는데 실마리가 돼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17세기 <소현성록>을 필두로 창작과 향유가 이루어진 국문장편소설은 18세기에 활발히 읽히다 19세기에 이르러 점점 쇠퇴에 접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대한 분량에도 필사의 형태로 꾸준한 향유가 이루어져온 국문장편소설의 각종은 개별 작품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도 지속적으로 이본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곧 국문장편소설이 오랜 시간 향유되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동시에 그 향유가 처음 창작된 모습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변화를 거치면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때문에 유의미한 의미를 지니는 이본들에 대한 고찰은 작품 연구의 기초를 다지는 동시에 국문장편소설의 향유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때문에 국문장편소설의 이본(異本)에 대한 탐색은 연구 초기부터 이루어져 왔다. 국문장편소설 연구 초기에 이본에 대한 논의는 <소현성록>, <유씨삼대록>, <임씨삼대록>, <완월회맹연> 등의 작품을 대상으로 주로 그 현황을 개괄하고, 몇몇 종의 이본을 선별 후 일부를 발췌해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¹⁾ 이는 국문장편소설에서 이본의 고찰이 중

1)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3;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태학사, 1997; 김현숙, 『<유씨삼대록> 연구-삼대기 구성을 중심으로』, 이화

요함을 밝히고, 작품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특정 부분의 발췌 비교로 인해 이본들의 세밀한 지향의 차이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웠다.

다음으로는 개별 작품들의 이본 전권을 비교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졌다. <소현성록>의 2종의 완질본을 인물형상화의 측면에서 살핀 연구²⁾, <완월회맹연>의 3종의 이본의 비교를 통해 그 특징을 밝힌 연구³⁾, <현씨양옹쌍린기>의 11종의 이본을 검토하고 세책본인 연대본의 특성을 밝힌 연구⁴⁾, <명주옥연기합록>의 2종의 완질본을 비교하고 서지적 특성을 밝힌 연구⁵⁾, <벽허담관제언록>의 3종의 완질본을 비교하고 서지적 특성을 밝힌 연구⁶⁾, <양문충의록>의 2종의 완질본을 구성, 분량, 표현, 지향성을 중심으로 비교해 이본의 특징을 밝힌 연구⁷⁾, <옥환기봉>의 20종의 이본의 현황을 개괄하고 서지를 검토한 연구⁸⁾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방대한 분량을 지닌 국문장편소설의 이본을 세밀히 검토해 그 특징과 이를 향유한 이들의 의식지향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대 석사학위논문, 1988; 임치균, 『조선조 대장편소설 연구』, 태학사, 1996.

2) 노정은, 『<소현성록>의 인물 형상화 변이 양상: 이대본과 서울대 21권본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4.

3) 이현주, 『<완월회맹연>의 이본현황과 서지적 특징』, 『어문학』 111, 한국어문학회, 2011.

4) 이다원, 『<현씨양옹쌍린기> 연구 - 연대본 <현씨양옹쌍린기>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0.

5) 박은정, 『<명주옥연기합록>의 이본과 영남대본의 가치』, 『민족문화논총』 5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

6) Kobayakova Uliana, 『<벽허담관제언록>의 이본 연구 - 완질본을 중심으로』, 『고소설 연구』 30집, 고소설학회, 2010.

7) 강미선, 『<양문충의록> 연구 - 이본비교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3집, 고소설학회, 2007; 차충환, 『<양문충의록>의 이본과 주변 작품과의 연계성』, 『국어국문학』 146, 국어국문학회, 2007.

8) 박은정, 『<옥환기봉> 연작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2008.

<현씨양옹쌍린기>와 <옥환기봉>을 제외한 연구의 대상 작품들이 이본이 존재할지라도 그 종이 2~3종에 그치고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국문 장편소설의 향유 양상을 보다 섬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본이 다수 전하는 작품들에 대한 이본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명주기봉>은 <현씨양옹쌍린기> - <명주기봉> - <명주옥연기합록>으로 이어지는 <현씨양옹쌍린기> 연작의 2번째 작품이다. 이 작품은 1790년대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옥원재합기연>의 표지 안쪽⁹⁾과 1872년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언문칙목록』¹⁰⁾에 그 제명(題名)이 적혀져 있으며, 1975년 경북 북부지역에서 실시된 고전소설 독자의 성향연구에서 독서 작품으로 언급¹¹⁾되고 있어 18, 19, 20세기에 걸쳐 향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간 <명주기봉>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연작들과의 관련 양상, 기봉류 소설로서의 특징, 창작 방식, 주요 갈등의 특징, 작가 의식 등의 연구¹²⁾가 축적되어 <명주기봉>을 보다 잘

9) 심경호, 「낙선재본 소설의 선행본에 관한 일고찰 - 온양정씨 필사본 <옥원재합기연>과 낙선재본 <옥원중회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3권 1호 통권 38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10) 강전섭, 「<언문칙목록> 소고」, 사재동 편, 『한국서사문학사의 연구』 V, 중앙문화사, 1995.

11) 이원주, 「고전소설 독자의 성향」, 『한국학논집』 3,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1975.

12) 김진세, 「이조연작소설연구」, 『서울대 교양과정부 논문집』 5, 서울대학교, 1973; 송성욱, 「<명주기봉>에 나타난 규방에 대한 관심」, 『고전문학연구』 7, 한국고전문학회, 1992; 이지하, 「<현씨양옹쌍린기> 연작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최길용, 『조선조 연작소설 연구』, 아세아문화사, 1992; 양혜란, 『조선조 기봉류 소설 연구』, 이회문화사, 1995; 송성욱,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서사문법과 창작의식』, 태학사, 2003; 한길연, 「소인형 장인이 등장하는 용서대답담 연구: 여주인공 입장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5호, 한국고소설학회, 2003; 한길연, 「대하소설의 '일상 서사'의 미학-일상과 탈일상의 줄타기」, 『국문학연구』 14, 국문학회, 2006; 고은임, 「<명주기봉>의 애정 형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이영택, 「<현씨양옹쌍린기> 연작 연구」, 한국의국어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이지하, 「대하소설 속 친동기간 선악 구도와 그 의미」,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명주기봉>은 현재 2종의 완질본과 24종의 낙질본이 전한다. 국문장편소설의 상당수가 유일본으로 존재하거나 이본이 있더라도 적은 것에 비해, 이는 상당히 많은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이본에 관한 연구는 향유의 실상을 실증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그런데 <명주기봉>의 이본에 대한 논의는 개괄에 그치고 있어 후속 논의를 필요로 한다.¹³⁾ 현재 전하는 <명주기봉>의 완질본 2종은 장서각본 24권 24책과 고대본 22권 22책으로, 선행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은 내용이 보다 풍부한 장서각본이다. 그런데 고대본은 장서각본의 서사를 공유하면서도 세부적인 변모를 보이고 있으며, 그 형태는 세책필사본의 모습을 띠고 있다. 따라서 고대본에 대한 검토는 이 작품의 변모 과정과 향유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종의 완질본의 비교 고찰은 낙질로 존재하는 24종의 이본들 간의 친연성을 살펴 향유의 정황을 살펴볼 때 비교의 준거가 되어준다는 점에서 우선되어야 하는 논의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22권 22책의 고대본 <명주기봉>을 24권 24책의 장서각본 <명주기봉>과 정밀하게 비교 검토한 후, 고대본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명주기봉>의 향유되었던 상황을 보다 심도 깊게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문화』 63,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3; 최수현, 「<명주기봉>에 나타난 자매갈등의 형상과 그 의미」, 『어문연구』 16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4; 이나라, 「<명주기봉>에 나타난 가족 갈등과 그 의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고은임, 국문장편소설 여성인물의 정절 이념 전용(轉用) 양상 - <유씨삼대록>, <명주기봉>, <부장양문록>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39, 고소설학회, 2015.

13) 조희용,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148쪽; 고은임, 앞의 논문, 9~13쪽.

2. 서지 검토

고대본 <명주기봉>의 서지 상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를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장서각본의 서지 사항을 살펴보자. 장서각본은 24권 24책의 한글필사본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각권의 면수는 106~137면, 1면은 10행, 1행은 19~23자로 이루어져있어, 대략의 분량은 614,250자이다.¹⁴⁾ 각권의 표제는 한자로 ‘明珠奇逢’으로, 내제는 한글로 ‘명주기봉 쌍린즈녀별던’으로 되어 있다. 전권이 동일한 이의 필체이며, 정갈한 궁체로 쓰여 있다.

이에 비해 고대본은 22권 22책의 한글필사본으로, 고려대학교 도서관 한적실에 소장되어 있다. 각권의 면수는 72~138면, 1면은 11행, 1행은 21~31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권당 면수는 1권과 5권을 제외하고는 7~80면 내외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¹⁵⁾ 대략의 분량은 478,929자이며 이는 장서각본 분량의 78%에 해당한다.¹⁶⁾ 각권의 표제는 한자로 ‘明珠奇逢’으로, 내제는 한글로 ‘명주기봉’으로 되어 있다. 5권만 본문에 ‘쌍용즈녀 별전’이라는 표제가 들어있다. 동일한 이의 필체로 전권이 이루어져 있으며, 장서각본에 비해 필체의 정갈함은 부족하다. 고대본은 필사 과정에서 빠뜨린 부분은 작은 글씨로 옆에 적어두었으며, 잘못 표기한 부분은 검게 칠하고 이어 썼고, 글자의 순서가 잘못 적힌 부분은 바로 잡는 표기를 해 두었다.

그런데 고대본은 이 이본이 세책필사본이었음을 알려주는 정황이 곳곳에 있어 주목을 요한다. 우선, 고대본의 마지막권인 22권의 말미에는 필사

14) 총 매수 2925매, 각행 10행, 평균 글자수인 21자로 분량을 가늠했을 때 대략 총글자수는 614,250자이다.

15) 1권은 138면, 5권은 102면이다.

16) 총 매수 1893매에 각행 11행, 평균 글자수인 23자로 분량을 가늠했을 때 대략 총글자수는 478,929자이다.

시기와 필사장소를 밝혀주는 기록인 ‘光武三年己亥秋八月初二 水門洞書’가 적혀 있어, 이 이본이 1899년 수문동에서 필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필사가 이루어진 장소인 수문동은 현재의 서울 종로구 중학동과 세종로동에 걸쳐 있던 곳이다.¹⁷⁾ 세책점이 있던 곳으로 현재 수문동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으나 세책점 중의 상당수가 종로, 을지로, 청계천에 모여 있었으며, 특히 세책점이 있던 누동과 묘동이 고대본이 필사된 수문동과 인접해 있는 지역임을 염두에 본다면¹⁸⁾, 고대본이 수문동에서 필사되었다는 점은 이 책이 세책필사본으로서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고대본은 매권마다 한자로 상단에 장차(張次)를 표기하고 있다. 또한 1권과 15권을 제외한 매권의 말미에는 ‘것중병스십이중’, ‘것중병스십구중’ 등과 같이 표제를 포함한 전체 장수를 표시하는 표기를 해두고 있는데, 이는 장서각본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특징이다.

아울러 고대본에는 다음 권의 처음 부분이 앞 권의 마지막 문장을 짧게는 1줄에서 길게는 4줄 분량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반복돼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2, 5,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전체 22권 중 17권에 해당한다.¹⁹⁾ 이러한 점 역시 장서각본에서 발견되지 않는 부분이다.

17) 또한 수문동은 서울 종로구 권농동과 와룡동의 경계에 있던 마을이기도 한다.

서울지명사전, http://culture.seoul.go.kr/ssggDic/ssggDic.do?_method=init

18) 이윤석·정명기, 『세책 고소설 연구의 현황과 과제』, 『세책 고소설 연구』, 혜안, 2003, 72~84쪽.

19) 고대본의 경우 2, 3, 15권의 마지막 부분은 문장을 종결하지 못한 채 부자연스럽게 끝나고 있다. 2, 3권과 15, 16권의 연결은 내용상으로는 연결되고 있지만 문장의 흐름은 매끄럽지 못한 편이며, 3, 4권의 연결은 3권의 마지막 문장이 종결되지 못했지만 4권에서 매끄럽게 연결되고 있다. 3권의 마지막 문장은 ‘임의 이십당이 는 되어스이 부마 갓트면 관겨치’로 끝나며, 4권의 처음은 ‘안이케 너기려이와 공즈는 알프를 이기지 못하여’로 시작된다. 덧붙여 15권의 경우는 다른 권들과 달리 전체 장수를 표기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보편 과정에서 1면 정도 누락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고대본에는 권말의 마지막 문장이 ‘하문하라’, ‘차청하회하라’, ‘차청하회를 분석하라’로 나타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는 국문장편소설에서 종종 발견되는 표현인데, 고대본은 권의 중간 부분만이 아니라 분권이 마무리 될 때, 마지막 문장이 상당수 이 같은 문구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이는 1, 6, 7, 8, 9, 10, 11, 12, 13, 14, 17, 18, 19, 21, 22권에서 발견된다. 장서각본에도 이러한 문구는 나타나나 그 빈도가 고대본이 22권 중 15권에서 발견되는 것에 비해 장서각본에는 24권 중 4권에서만 발견되는 데 그치고 있다.²⁰⁾

이처럼 위에서 언급한 필사시기와 필사장소가 권말에 제시되고 있는 점, 각 장의 앞면 상단에 장수 표기가 되어 있는 점, 전권의 마지막 문장이 다음권의 첫 문장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점, 권말에 차청 하회하라와 같은 문구가 나타나는 점, 각권이 매면 11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들은 대개 세책 필사본에서 발견되는 특징으로 알려져 있어²¹⁾, 고대본이 세책 필사본으로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게 하며, 이는 곧 이 이본이 세책의 형태로 향유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해주는 단서가 된다.

20) 장서각본 7권 말미는 ‘차청 하회분히하라’, 14권 말미는 ‘차시 엇지 된고 하회 분석하라’, 15권 말미는 ‘하회를 분석하라’, 19권 말미는 ‘차청 하회 분석하라’이다.

21) 세책필사본의 특징으로 제시된 7가지 특징 가운데 고대본은 6가지(②, ③, ④, ⑤, ⑥, ⑦)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① 책장을 넘기는 부분의 1, 2행은 다른 행에 비해 1~3자 덜 쓰여져 있고, 매행이 대략 13~14자 임 ② 각권은 매면 11행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임 ③ 각 장의 앞 면 상단에 해당 장수를 한자로 표기함 ④ 한 권의 장수는 대부분 30장 내외로 이루어지나 자료에 따라서는 24~6장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많게는 40장 내외로 된 것도 있음 ⑤ 각 권의 끝 부분에는 ‘차청하회하라’, ‘차청하문하라’ 등과 같이 뒷이야기의 내용을 듣거나 또는 보라는 용어가 다양한 형태로 출현함 ⑥ 필사기는 대개 ‘세지무신 삼월일 향슈동필서’와 같이 간기와 간소가 명시되어 있음 ⑦ 권말의 서술이 다시 한 번 이하 권의 서두에 그대로, 또는 약간 변형되어 나타나는 면모를 띠고 있음. 정명기, 『세책 필사본 고소설』에 대한 서설적 이해, 『고소설연구』 1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1, 449쪽.

고대본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서각본에 비해 그 분량이 대략 78% 정도에 그친다. 분량의 차이가 있는 만큼 고대본은 장서각본의 전체 서사를 공유하면서도 사건이나 장면을 생략하거나 축약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고대본이 단순히 장서각본을 축약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특정 사건이나 장면을 선별해 생략과 축약을 진행할뿐더러, 장서각본의 자구와 다른 부분을 상당수 보여주기 때문이다. 사건과 장면의 선별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여기서는 자구의 차이를 통해 고대본이 장서각본과 다른 점을 보이는 면을 살펴보자.

- 장서각본 1권: 화설 대송 인종년간의 비서각 태혹스 우부도어스 병부상서 겸 비장군 평제후 현슈문의 즈는 즈예니 승상 춘현공 현택지의 장즈오 레부상서 장지의 외손이라
- 고대본 1권: 화설 더송 경오연간의 비서각 티학스 우부도어스 병부상서 더장군 평제후 현슈문의 자는 자예이 승승 춘현공 현택지의 장즈오 예부상서 장지의 외손이라

위의 인용문은 장서각본과 고대본의 처음 시작 부분이다. 전달하는 내용은 동일하지만 ‘태혹스/티학스’, ‘비장군/더장군’, ‘즈예니/자예이’, ‘레부상서/예부상서’와 같이 표기가 다른 것뿐만 아니라 어휘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장서각본은 <명주기봉>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시기를 ‘인종년간’으로 고대본은 ‘경오연간’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고대본에 나타난 경오연간은 인종의 연호인 경우(景祐)를 경오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즉 고대본은 장서각본과 동일한 시기를 적으면서도 이를 표현하는 어휘를 다르게 선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어휘의 차이는 작품 전반에 걸쳐 발견되는데,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장서각본 7권: 한림이 씨를 타 동관진혹스를 축하여 공도로이 상언하
대 고 추관 항취 소즈경이 임소의셔 직스하고 그 처숙이 인하여 향년의
도라오지 못하여 항취 농민이 되어시니 이는 성주의 환과고독을 무애
하시는 뜻이 아니라 맛당이 선용하여 그 즈식이 잇거든 후일 벼슬을
승습하시고 그 과쳐로 하여금 은명을 입게 호소서 데 윤증하사 하도하
여 소즈경의 처즈를 경스 넷집의 도라오게 하사 항취 즈스의게 조지를
나리오시니 즈시 봉지하여 소추관 가사를 츠져 은명을 전하고 횡중 즈
물을 유족히 츠려 경사로 보내다
- 고대본 5권: 어시의 출방헌님 학스 현공이 상소 왈 전님 횡취 추관 소
즈경은 명철흔 군지라 일직 횡주의셔 죽고 그 처 지인하여 향이의 유락
하여 상경할 기세 업소오썸 안야 지금은 명이 느리지 안이호오미 그
즈손이 폐인이 되어스오이 정직 명철흔 신희의 즈손을 신원치 아이호
오면 국정의 손상호올지라 신이 스정을 도라보지 아이호옵고 감히 미
성을 상달호옵논이 원폐하는 그 과쳐로 하여금 은명을 입게 호옵소서
상이 윤송하스 소즈경 처즈을 경스 예집의 도라오게 황취즈스의게 조
지를 나리오스 상경케 하라 하시이 즈시 몽조하여 소추관의 처즈을 츠
자 은명을 전하고 횡중 즈물을 유족히 준비하여 경스로 보니다

위의 인용문은 현성린이 부인 소옥설의 친정붙이들을 경사로 데려오고
자 상언을 올리는 대목이다. 장서각본과 고대본의 상언을 올리는 이와 상
언의 내용이 자구의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장서각본에서는 현성린이
동관진학사에게 부탁에 상언을 올리게 하는데 비해 고대본에서는 현성린
이 직접 상소를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두 경우 모두 현성린의 주도
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이 차이가 내용의 차이를 가져오지는 못한다.²²⁾

그런데 이 상언의 내용은 같은 뜻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나타

22) 이처럼 고대본이 장서각본과 다른 자구를 사용해 내용상 미세한 차이를 가져오는 부
분은 종종 나타나는데 이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내는 어휘들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임소의셔 깃스하고/일직 흥주의 셔 죽고’, ‘그 쳐속이 인하여 향년의 도라오지 못하여 향쥬 농민이 되어서 니/그 쳐 지인하여 향이의 유락하여 상경할 기세 업사오썸 안야 지금은 명이 느리지 안이호오미 그 즈손이 폐인이 되어스오이’, ‘이는 성주의 환과고독을 무애하시는 뜻이 아니라/정직 명철흔 신희의 즈손을 신원치 아 이호오면 국정의 손상호을지라’와 같이 고대본은 장서각본과 유사한 내용을 보여주더라도 다른 어휘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점은 고대본 전반에 걸쳐 곳곳에서 수시로 나타나고 있다.

3. 고대본 <명주기봉>의 변화 양상

1) 사건과 장면의 생략

고대본 <명주기봉>은 장서각본에 비해 전체 분량이 대략 78%에 이르며, 이 차이는 대략 135,321자에 이른다. 고대본은 전체 내용의 틀은 장서각본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건이나 장면에서 상당한 내용을 생략하거나 축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 장서각본에 등장하나 고대본에 생략된 사건과 장면

	생략된 사건과 장면	장서각본 등장권수
1	대진국과 동오국이 모반을 일으키자 현수문과 현경문이 출정을 자원한다.	2권
2	현웅린과 혼인하길 원하는 사마영주가 그 부인 사마예주를 모해한다. - 사마예주가 가유진과 사통(私通) 한 것처럼 편지를 2차례 위조하며, 가가유진이 사마예주 처소로 가려는 것처럼 꾸며 현웅린이 보게 한다. ²³⁾	2권
3	현웅린과 혼인할 빌미를 만들고자 사마영주가 거짓으로 실성한 채 하며 사마부에 온 현웅린을 나체로 끌어안는다.	2, 3권

4	현천린이 틈틈이 옛 부인 설소저를 찾아가 정을 나누고 미혼주를 마셔 부인 월성공주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다.	3권
5	모친 주부인에게 꾸지람을 들은 현천린이 그 원인이 월성공주에게 있다 여기고 공주를 핍박하던 중, 자신에게 대든 궁녀 소옥의 머리를 벤다.	3권
6	과거가 열리고 현성린, 현봉린, 현덕린이 급제한다.	7권
7	과거가 열리고 현숙린이 급제한다.	12권
8	독부 위극의 첩 행운선이 그 아들 위중양을 참소해 부친에게 구타 및 핍박을 받게 한다.	14권

<명주기봉>은 송(宋) 인종 대를 배경으로 현수문, 현경문 형제의 자녀들의 혼인과 부부 생활 그리고 현씨 가문의 번성을 그려낸 작품이다. 그런데 고대본은 장서각본에 나타난 전체 내용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위의 표에서처럼 8가지의 세부 사건과 장면을 생략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2가지로 압축된다. 현수문, 현경문의 출정 자원(표 1번)이나 현씨 가문 남성들의 과거 합격(표 6, 7번)과 같은 남성들의 대외 활동, 선한 인물이 핍박을 받거나 선한 인물을 모함에 빠뜨리려는 일(표 2, 3, 4, 5, 8번)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생략되는 사건들은 전체 서사의 흐름을 바꾸지 못할 뿐더러, 생략되는 사건의 전후로 문맥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연결돼 생략으로 인한 부자연스러움은 최소화 되고 있다. 때문에 고대본이 필사상의 실수로 사건을 누락시키거나 아무런 고려 없이 사건을 생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의도를 가지고 이를 생략했음을 알게 한다.

우선, 고대본에서 생략되는 사건들은 위의 표에서 보이듯이 장서각본 2권과 3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분량은 대략 58면 정도에 해당된다. 고대본이

23) 실제 서사의 전개 상 순서는 사마영주가 실성한 채 소문을 내는 것, 사마영주가 사마예주의 간부서를 2차례 꾸미는 것, 사마영주가 나체로 현웅린을 끌어안는 것, 사마영주가 사마예주의 간부로 가가유진을 위장시키는 것 순서로 진행되나 여기서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를 정리하였다.

집중적으로 생략한 사건들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되는데, 현수문, 현경문 형제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출정을 자원하는 부분, 현천린이 사혼으로 아내로 맞이한 월성공주를 꺾박하는 부분, 현웅린과 혼인하기를 원하는 사마영주가 이를 위해 계교를 벌이는 부분들이다. 그런데 고대본은 이러한 사건들을 생략하면서 문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다. 사건들의 생략 전후로 기술되는 내용은 현천린과 월성공주에 관한 이야기로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경문의 장남 현천린은 혼인 후 부마에 간택되어 설단아와 이혼하게 돼, 월성공주와 심각한 갈등을 빚는 인물이다. 고대본은 장서각본에 등장한 사건들의 생략 전에 설단아와 이혼하게 된 현천린이 월성공주를 꺾박해 월성공주가 아프게 되는 내용을 보여주며, 사건들의 생략 후에 모친인 주부인에게 월성공주를 꺾박하는 일로 꾸지람을 들은 현천린이 이에 대한 불만으로 월성공주를 더욱 꺾박하는 내용을 제시해, 생략 전후로 사건을 매끄럽게 연결해 보여준다.

또 고대본은 생략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생략 전후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단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서사를 이해하는 데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예컨대, 현웅린과 혼인하길 원하는 사마영주가 친동생인 사마예주가 현웅린의 부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접지 않는 인물이라는 점은 고대본에서도 사건의 생략 전에 서술되고 있으며, 사건의 생략 후 사마예주가 유배 가는 상황을 보여줄 때 이는 다름 아닌 사마영주의 모략으로 인해 벌어진 것이라는 점을 언급한다. 때문에 사마영주가 벌인 모해 사건이나 계략 장면이 생략되어도 서사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2) 사건과 장면의 축약

고대본은 사건이나 장면의 생략 못지않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축약하고

있다. 이러한 축약은 특정한 권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서사에 고루 등장한다. 특히 고대본은 행위 묘사를 심리 묘사에 비해 많이 축약하며, 축약되는 사건이나 장면은 전쟁, 파견, 모해에 집중되어 있다. 또 축약이 일어날 때는 내용의 변개 없이 축약을 하거나, 세부 사건의 변형을 피하기도 한다.

우선, 전쟁담을 축약하는 모습부터 살펴보자. <명주기봉>에는 총 6차례에 걸쳐 전쟁담이 펼쳐진다. 고대본 역시 6차례의 전쟁담을 모두 보여 주나, 동시에 모든 전쟁담을 축약하고 있다.

	〈명주기봉〉에 등장하는 전쟁담	장서각본		고대본	
		등장권수	등장총면	등장권수	등장총면
1	동오국과의 전쟁에서 현수문이 승전을 거둔다.	3권	17면	2권	9면
2	대진국과의 전쟁에서 현경문이 승전을 거둔다.	4권	33면	2권	17면
3	하북, 영남, 절강의 반란을 현천린이 진압한다.	8권	31면	5권	25면
4	교서의 반란을 현웅린과 가유진이 진압한다.	15권	21면	13권	10면
5	교동의 반란을 현천린과 현명린이 진압한다.	15권	30면	13권	25면
6	제조지경의 무길의 반란을 현천린이 진압한다.	23권	65면	21권	36면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장서각본에는 전쟁담이 총 197면에 걸쳐 서술되는 반면, 고대본에는 전쟁담이 총 122면에 걸쳐 서술되고 있다. 물론 현천린과 현명린이 교동의 반란을 진압하려 나갔던 전쟁담(표 5번)은 5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에 비해, 현천린이 무길의 반란을 진압하려 나갔던 전쟁담(표 6번)은 29면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개별 전쟁담에 따라 축약의 정도는 다르지만 고대본은 <명주기봉>에 등장한 전쟁담 모두를 축약한다.

대다수의 경우 고대본에서 일어나는 축약은 장서각본의 내용을 변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축약을 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살펴보자.

- 장서각본 23권: 화대목이 바라보고 망흔상담하디 첫진의 승 〃 흔 예기 잇는지라 다시 튕돌하여 느으드니 원쉬 놀하여 칼홀 드러 므즈민 겹하 의 빗치 니러나 그 진퇴흔는 거동이 상설이 비 〃 햐 월하의 뿌리는듯 하니 대목이 썰니고 손이 푸러지는지라 급히 허리 아리로조츠 놀낸 비 슈를 썬혀 향하여 더지니 [밑줄은 고대본에서 생략된 부분임]
- 고대본 21권: 화대목이 바라보고 심흔의 두려하미 잇더라 므즈 교봉 슈십여합의 더목이 능히 당치 못하여 말을 두루혀며 급 허리아리로조 츄 날닌 비도를 더지이

인용문은 위의 표에서 6번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왕의 반란을 진압하러 나간 현천린이 제국 장수 화대목과 접전을 벌이는 장면이다. 장서각본은 접전을 치르러 나온 화대목이 현천린을 바라보는 모습과 현천린이 접전 지에 나아오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데 비해, 고대본은 화대목이 현천린을 바라보는 모습만을 서술하는 데 그친다. 이처럼 세부 장면의 일부를 축약하는 형태는 고대본의 곳곳에서 자주 발견된다.

또 고대본은 축약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틀은 유지하되, 사건이나 장면에 변화를 주며 축약하는 모습도 보인다. 길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인용문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 장서각본 23권: 문득 광풍이 대작하여 전면의 넝기 부러지고 원슈의 쓴 관이 버셔지거날 좌위 대경햐야 어즈러이 슈션거리디 원쉬 경동하미 업셔 스미 안흐로서 환괘를 엇고 소왓 무길이 꺾군하미 계공역진하여 금야의 우리 영을 겁척홀 쓰지 이시니 일노 인햐여 계교로써 못질너 한복의 파하리라 이의 던령햐여 제장을 등군장 하의 불너 계교를 지휘 하고 …(중략)… 왕이 대로 왓 필뵈 감히 망언을 놀너 군심을 소요하니 엇지 죄를 사하리오 좌우를 꾸지저 머리를 버히라 하니 제신이 다 간하디 무길이 불평하고 직촉햐여 버혀 군등의 효시하니 모든 장식 터럭이

숫그러혀 불감망언어어늘 제왕이 다시 니로디 현적이 오늘 이그디
 괴운이 승 〽 〽야 반드시 입타히미 이실지라 씨를 다 겁칙혀 엄습흔
 즉 감히 도수족을 못히리라 하고 전령혀야 삼천 정병을 조발하고 군시
 함미혀야 말기 방울을 써히고 반야삼경의 바로 관진을 겁칙홀시 다만
 보니 영등이 고요혀여 순초군시 다 오솔 벗고 …(중략)… 문득 전면의
 흡성이 더진하고 고각이 제명혀여 전후 좌우로 군병이 모라내다라
 층 〽 밀 〽 히 씨 무길의 군신을 털동가치 에워 빠니 이러굴 스이의 원슈
 의 간 바를 모르는지라 제왕이 비로소 계교의 썩진줄 알고 분연혀야
 …(중략)… 제왕 무길을 싱금혀며 기여 협중으로 살 길을 구혀야 망풍
 귀순히니 원슈 전령혀야 대 〽 인마를 거느려 제국 성하의 늑아가 금고
 를 울니며 성을 파홀시

- 고대본 21권: 문득 광풍이 진동하며 구름이 몰이는 가운데 〽 흥쭈기
 나부치이며 적진 중의 디기 부러져 너머지이 만군 장졸이 의아하고 원
 슈 스스로 심각하는 일이 잇서 마음의 회열히이 중장이 그 뜻을 몰노
 더라 이튼날 방포 일성의 서로 더진하고 군스를 늑아와 양진이 상전할
 시 적장이 원슈의 괴묘비기를 보고 겁혀 녀시 날고 담이 썩러지이
 원슈의 구경 드는 힘을 보고 더욱 겁하고 슈족을 놀이지 못히는지라
 제왕이 마음의 울기혀여 웃지 용역인들 쓰리오 원슈 괴묘비기를 갖초
 고 다시 용역을 발혀 제장을 분비혀 일시의 남 함하고 달여들이
 웨워 싸고 치이 제왕이 아모리 용땡혀나 미쳐 슈미를 도라보지 못
 고 할 길읍서 닷거날 원슈 신비전으로 맞춰 마히의 내려지는지라 적진
 장졸이 일시의 창을 바리고 손을 목거 행복히는지라 원슈 〽령 왈 만일
 제국 일인이라도 상히오는 지 잇스면 참히리라 하고 제국의 드러가

위의 인용문은 앞의 표의 6번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천린이 제왕과 전
 쟁을 벌이는 부분 중 한 대목이다. 장서각본과 고대본 모두 현천린이 제
 왕의 반란을 진압한 사건은 고대본이 내용을 축약할지언정 동일하게 나
 타난다. 그런데 승리에 이르는 마지막 대전 부분은 고대본이 장서각본과

다르게 짧게 축약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를 위해 그 내용을 변형하고 있다. 장서각본에서 마지막 대전은 제왕의 급습을 예견한 현천린이 방비 계략을 일러주며, 제왕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갖추지 않도록 해, 이에 속은 제왕이 끝내 사로잡혀 항복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7면에 걸쳐 생동감 있게 그려진다. 제왕이 그 부하 장수 모용탈과 송 진영을 칠 방법을 궁리하다 의견 충돌로 모용탈을 죽이는 부분은 서사에 긴장감을 유발시키며, 제왕이 송 진영을 급습하기 위해 말에 달린 방울을 떼고 잠입하는 장면은 긴장감을 한층 고조하며, 끝내 계교에 빠진 제왕이 현천린에게 사로잡히는 부분은 통쾌함을 주기에 이른다. 그런데 이를 고대본은 다음날 접전을 벌인 끝에 제왕이 패해 항복하는 것으로 변형해 보여주며, 2면에 걸쳐 짧게 그려낼 뿐이다.

이와 함께 고대본은 남성인물들의 파견담 역시 축약한다.

	〈명주기봉〉에 등장하는 파견담	장서각본		고대본	
		등장권수	등장총면	등장권수	등장총면
1	현웅린이 산동 지역 순무어사로 파견을 나가 선정을 베푼다.	6권	25면	4권	19면
2	현홍린이 남월의 새 왕을 정하는 일에 사신으로 다녀온다.	21권	29면	19권	14면

<명주기봉>에서 현씨 가문 남성들은 모두 관직에 진출한다. 이들은 조정에 모여 정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순무어사로 각 지방을 돌며 민심을 수습하기도 하고, 사신으로 파견돼 조공국의 책봉 문제를 황제 대행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역시 고대본은 위의 표에서 확인되듯 장서각본에 비해 축약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대본은 전쟁담이나 파견담과 같은 빈도는 아니지만 종종 상대를 음해하는 대목에서 벌어지는 행위들을 축약한다. 예컨대, 위극의

첩 행운선이 그 아들 위중양을 모함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사마 영주가 사마예주를 죽이고자 그 유배지에 자객을 보내는 일들은 고대본에서 축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²⁴⁾

3) 문구와 어휘의 추가

고대본은 장서각본에 비해 전체 분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실 추가 되는 사건이나 서술은 드물 수밖에 없다. 그런 중에도 고대본이 서술을 더욱 자세히 보여주는 대목들이 있어 주목을 요한다. 우선 고대본은 월성 공주의 출산을 다루는 부분을 장서각본에 비해 섬세히 서술하는데, 장서각본에서 12면에 걸쳐 서술된 내용을 고대본은 14면에 걸쳐 보여준다. 대표적인 예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자.

- 장서각본 16권 : 공주의 잉태 십스삭이 된지라 일개 도로혀 기다리미 진히고 동평휘 마을의 가 공사를 처결히더니 공췌 시산하기를 급히 하니 궁둥이 진공하여 정당의 고흐고즈흔나 공췌 분요흔를 슬히 너기고

24) 대표적으로 행운선이 벌이는 모함 내용이 고대본에서 축약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장서각본 14권 : 독부 침소의 니르러 크게 소리하여 왈 즈고로 미식은 잠즈의 사랑흔 배라 동작대의 이교를 닷토와 냥국이 징지히고 당태종의 광홍흔므로도 셔모를 음증흔여시니 부친이 만일 횡선을 내게 스양치 아닌신즉 내 또흔 부즈의 눈을 일긱지 아니코 오보안의 피로써 썩리리기다 독뵈 바야흐로 술이 미난흔여시니 엇지 진가를 분변흔며 본대 다겁히미 축냥업는고로 니를 썰고 니르대 이 엇진 일이노흔 계집이 무엇기 귀하여 아비를 죽이고져 혼는다 싱이 대미 왈 부친은 엇지 횡선을 앗겨 내게 허치 아니시노느 드대여 칼홀 들고 나아스니 위너 츱쟁을 보미 분흠과 놀나를 겸흔여 소리 지르고 역시 분용흔여 칼홀 썩히더니 싱이 황망이 칼홀 더지고 썩여나가미 [밑줄은 고대본에서 생략된 부분임] / ○ 고대본 12권 : 독부의 침소의 이르러 고성 왈 부친이 만일 날을 죽이지 안면 다시 부즈의 눈기를 이르지 아이 할거시오 어제 날을 쳐 피흘너시이 지금 오보지너의 피을 썩리"라 독부 본디 과겁히므로 썰며 왈 중앙야 이 옷진 일인요 싱이 칼을 들고 다라드이 분흔며 놀노오를 이기지 못흔여 또 칼을 드러 막으이 싱이 황망이 칼 더지고 다라나거날.

「요히 알을 썬이러니 부매 결스를 다한 후 부중의 도라와 잠간 단여 궁중의 니르니 계궁인이 분」 허 약을 다스리며 공주의 통성이 은」 하니 부매 빗비 문을 널미 니셜 낭상궁이 좌을 붓드러거늘 썰니 정당의 고하라하고 그 약질의 형식이 위」 하게 말는 양을 보니 장부의 털석 웅심이나 광미 슈운이 합집하여 한구석의 셋더니 듀부인이 도시로 더 브러 니르고 진공이 또흔 그러오미 순산홀 방약을 녀로야 쓰고 부마는 바로보지 못하여 장밧기 는와 안줏더니

- 고대본 15권: 공췌 십스삭이 된지라 일기 도로혀 기드리미 진하고 평휘 관식 다첩호무로 마을의 공스를 처결하더니 공췌 신산홀를 급히 하니 궁중이 진동하여 정당이 고코져하디 공췌 여러 스람이 분」 홀물 슬히 녀여 금지하고 고요이 아를 썬이러니 평휘 므음이 즈연 동하여 결스를 파하고 부중의 도라와 정당의 잠간 단여 궁의 이르니 궁네 분」 하여 약열 다스리며 방의 공주의 통성이 은」 하니 도위 문져 심신이 어즈러운 의식 놀노오니 빗비 문을 열고 보니 상궁 등이 좌우로 붓드러거날 도위 문왈 옥췌 만일 시산하미 계신즉 정당의 고치 아니하고 여등만 완호하는 뇨 썰이 정당의 고하라 하고 그 약질의 형식이 위」 하니 비록 장부 웅심 이는 영」 홀 낭미의 슈운이 합집하여 한구석의 셋더니 췌부인이 도시로 더부러 니르고 진공이 드러오니 이러구러 썬 이웁흔지라 순산하는 방약을 무슈이 쓰고 모든 부인이 좌우로 완호하니 부마는 심시 당황하여 당외의 는와 안줏더니 [밑줄은 고대본에서 추가된 부분임]

위는 월성공주가 현천린과의 사이에서 첫 아이를 출산하는 대목이다. 구체적으로는 임신 14개월에 이른 월성공주가 산통을 앓자 곁에 있던 현천린이 상궁을 불러 공주의 출산을 돕게 하며, 시부모인 현경문과 주부인이 공주를 보러 오는 장면이다. 이때 고대본은 장서각본에 비해 ‘평휘 관식 다첩호무로’, ‘평휘 므음이 즈연 동하여’와 같은 문구를 추가하여 일이 많은 가운데서도 공주의 몸 상태를 걱정해 빨리 월성궁으로 돌아가고자

한 현천린의 마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낸다. 또 궁에 돌아오고 난 후에 공주의 신음소리를 듣고 당황해하는 현천린의 모습을 장서각본이 문을 빨리 여는 것으로만 보여주는 것에 비해 고대본은 ‘도위 먼저 심신이 어스러운 의식 놀노오니’와 같은 표현으로 그 마음까지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출산에 임박해 힘들어하는 공주를 두고 상궁들이 정당에 채 알리지 않음을 안 현천린을 장서각본이 빨리 정당에 고하라는 지시만 내린 것으로 그린 반면, 고대본은 ‘도위 문왈 옥썴 만일 시산하미 계신즉 정당의 고치 아니호고 여등만 완호하노뇨’와 같은 표현을 더 넣어주어 공주의 몸 상태를 걱정하는 현천린의 마음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한다.

즉 고대본은 장서각본에 비해 여러 문구들을 추가함으로써 월성공주의 출산에 대해 걱정하며 다급해하는 현천린의 마음을 보다 실감나게 그려낸다. 월성공주와 현천린은 인용문에 제시된 첫 출산을 경험하기에 앞서 임신 8개월 만에 사산을 하는 아픔을 겪은 적이 있다. 때문에 고대본에 추가된 서술들을 사산과 함께 생각해볼 때 출산을 걱정하는 현천린의 심정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데 일조한다.

이와 함께 고대본은 장서각본에 비해 예의와 관련된 내용이나 인물에 관한 정보를 보다 더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서술을 종종 추가하는 모습도 발견된다. 먼저 예의와 관련된 서술이 추가된 부분의 예를 살펴보자.

- 장서각본 18권: 티지 눈을 드러 좌우를 보시니 네 쌍 시네 좌우로 피서 주리치와 공작션을 들고 가운데 태스와 부인이 엽디여시니 부인은 희년이 지느시디 안식이 도화갓고
- 고대본 16권: 춘궁이 잠간 눈을 드러 좌우를 보시미 네 쌍 시녀 같노 피서 파리치와 공작션을 드렸고 가운데 장부인이 티스 여복을 입고 엽디여시이 부인 연기 희연이 지느시디 안식이 도화갓고 [밑줄은 고대본에서 추가된 부분임]

송(宋) 인종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명주기봉>에서 태자나 광평왕은 그 누이 월성공주가 시집 간 현씨 가문에 종종 방문을 한다. 태자는 현씨 가문의 큰 어른인 현택지와 장태부인의 수연(壽宴) 때 현부를 방문하며, 광평왕은 수시로 월성공주를 보기 위해 현부를 찾기 때문이다. 위의 인용문은 수연이 열렸을 때, 태자가 방문해 장태부인에게 술을 내리는 대목이다. 이때 장서각본은 현택지와 장태부인이 함께 태자를 맞는 모습을 그리는데 비해 고대본은 장태부인이 태자를 뵈는 예를 다하기 위해 현택지의 여복을 위에 입어 의관을 갖춘 짐을 추가해 언급한다. 이는 단순히 글자의 추가만이 아니라 태자와 장태부인의 관계를 고려해 의도적으로 넣은 문구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고대본이 인물에 관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하고자 할 때 어휘나 문구를 추가하는 부분을 살펴보자.

- 장서각 1권: 좌간의 장시중 형제 쇼왈 즈에 교염을 싱힐 제
- 고대본 1권: 좌간의 장시중 형제 이 곳 장부인 칠여로 장노공 아지이 양후로 더부러 비록 표중지간이나 정의 심후흐미 골육 갖고 시중 형제 위인이 희담 희희로 소일흐는지라 이의 미소 왈 즈에 교염을 싱힐 씨의는 [밑줄은 고대본에서 추가된 부분임]

위의 인용문은 서녀 현교염을 아끼는 부친 현수문에 대해 장시중 형제가 현씨 가문 일원들과 희담을 나누는 대목이다. 장시중 형제는 장태부인의 오빠 장노공의 아들들로 현수문, 현경문 형제와는 외사촌 관계에 있는 이들인데, 이들은 현부와 이웃해 지내면서 주로 현부에 와 한담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되듯 고대본은 장서각본에 비해 동일한 상황을 두고 한담을 이끌어가는 장시중 형제에 대한 소개를 추가하고 있다. 고대본이나 장서각본 모두 위의 인용문에 앞서 장시중 형제

에 대한 언급이 처음 소개될 때 이들을 한 차례 소개한 바 있다. 그런데 고대본은 그 후에도 장시중 형제에 대한 서술을 추가 반복함으로써 이 작품에서 유희와 회담을 주로 담당하는 장시중 형제의 신분과 역할에 대한 정보를 반복해 제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인물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는 점은 사람의 이름을 제시해주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예컨대, 현홍린의 부인 화옥수는 친정인 화부에서 지내던 중 계모의 모해로 인해 친척 제급사의 집으로 피신을 하는데, 장서각본은 화옥수가 피신한 곳을 제급사의 집으로만 소개하는 데 반해, 고대본은 제급사의 이름을 함께 제시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²⁵⁾

4) 어휘의 변이

고대본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서각본과 동일한 내용을 보여주더라도 자구의 변화를 작품 전반에 걸쳐 곳곳에서 자주 보여준다. 그런데 고대본은 종종 다른 어휘의 선택을 통해 장서각본과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다.

우선 고대본은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제시하고자 할 때 이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예컨대 화정윤은 인종황제의 인척으로 현홍린의 장인이 되는 이이다. 이를 장서각본은 선황제 장국구 화예의 아들로 제시하는데 반해 고대본은 선황 장국구 화예의 손자로 제시한다.²⁶⁾ 화정윤이 인종황제와 시촌지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화정윤에 관한 소개는 고대본에서 제시

25) ○ 장서각본 20권: 문을 급히 두다리니 제급스는 화국공 오촌숙이라 / ○ 고대본 18권 : 문을 두다리아 급스 제일은 화국공의 오촌숙이라

26) ○ 장서각본 18권: 차절 남국공 화정윤의 증은 밍분이니 선황 당국구 화예의 아들이라 금상으로 더브러 스촌지의 이스니 상이 일족이 모후를 여히옵고 쯤문 친족을 극히 후디흐사 / ○ 고대본 16권: 어시의 광취절도스 남국공 화정윤의 증은 밍분이 선황 장숙 구 화예의 손지가 금상으로 스촌이라 일작이 모후을 여히고 쯤문 친족을 우디흐스

한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고대본 역시 필사 과정에서 글자의 순서를 바꿔 쓴 경우도 있으며, 글자를 빠뜨려 옆에 작은 글씨로 덧붙여 써 놓은 부분이 있을 정도로 오기가 전혀 없는 판본은 아니다. 그러나 고대본은 이처럼 인물 간의 관계를 제시할 때 장서각본에서 잘못 제시한 부분들을 바로잡아 표기해주고는 한다.

다음으로 고대본은 정황에 따라 장서각본과 어휘를 다르게 사용함으로써, 정황에 대한 고대본 필사자의 판단을 드러내고는 한다. 예컨대, 월성공주가 첫 아이를 출산했을 때 인종황제를 알현하는 것을 두고 두 본 모두 공주의 몸이 약한 것을 걱정해 입궐을 늦추게 하는데 이 기간을 장서각본은 한 달로 제시하는데 비해 고대본은 수개월로 바꾸고 있다.²⁷⁾ 이러한 또 다른 예는 현희염을 돕는 인물을 제시할 때에도 발견된다. 부친의 지인지감에 의해 부모가 죽은 후 혈혈단신으로 지내던 가유진과 혼인을 한 현희염은 혼인 후 과거에 급제한 가유진으로 인해 황제로부터 하사받은 집에서 녹봉으로 생계를 꾸리는데, 현부에서는 그 가계를 염려해 끊임없이 도움을 준다. 이때 장서각본은 도움을 주는 이를 현희염의 오빠인 현천린으로 제시하는데 비해, 고대본은 현희염의 부친인 현경문으로 제시 하는 차이를 보인다.²⁸⁾ 이 같은 어휘의 차이는 필사 과정에서 실수로 벌어진 오기이기보다는 문맥을 고려했을 때 몸이 약한 월성공주가 출산 후 입궐하는 데 필요한

27) ○ 장서각본 16권: 황야와 낭〓이 유〓의 영형호를 드르시고 빗비 보고즈 흐시디 혹자 축풍홀가 두리시더니 일삭이 지느미 썰니 공쥬를 입궐하라 흐시니/ ○ 고대본 15권 : 켈너의셔 승휘 일시를 빗바 흐시디 공쥬 모지 축풍홀가 두리스 슈삭을 츠마 공쥬 입궐을 명흐스

28) ○ 장서각본 12권: 중송이 츠후 농농흔 텃총을 빗츠와 일흠이 청스의 빗느니 타일 죽히 죽뵝의 드리오고 능연각의 오를 거시어늘 부마 등 제인의 우이 더욱 지극하여 반드시 봉읍 소산과 관녹으로 뼈 가중송 부인의 가계를 돕고/ ○ 고대본 10권: 진공이 희염의 일을 생각하면 고금의 희환지시라 호고 깃부물 이기지 못호고 그 가세 부족호미 읍스나 즈가의 녹봉 소산을 절반으로 뼈 기우려 소저의 가계를 보티고

최소한의 시간이나, 출가한 현부 여성의 생활을 도와주는 이에 대한 설정에 대한 고대본 필사자의 고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4. 고대본 〈명주기봉〉의 변화의 특징

이처럼 고대본이 장서각본과 달라진 부분들을 검토해보았을 때 그 변화는 크게 3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다. 바로 남성들의 대외적인 활동보다 가문 내에서 벌어지는 부부 생활에 집중한다는 점,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소략하게 다루면서 보다 예의를 중시하고자 했다는 점, 인물에 관한 정보들을 보다 세밀히 알려주고자 했던 점이 그것이다.

먼저 고대본은 장서각본의 내용을 보여줄 때 남성들의 대외적 활동보다 가문 내에서 벌어지는 부부 생활과 관련된 일상적인 일들에 집중하는 특징을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대본에서 생략이나 축약이 일어나는 대다수의 경우가 다름 아닌 남성들의 전쟁담과 파견담이기 때문이다. 장서각본에 등장하는 모든 전쟁담과 파견담의 내용이 축약되고 있으며, 현부 남성들 가운데 몇몇 인물의 과거 급제 사건들까지 생략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처럼 고대본은 남성들의 대외적인 활약상에 관한 부분을 압축시켜 서사 진행을 빠르게 하는 대신, 가문 내에서 벌어지는 부부 간의 갈등, 출산, 잔치, 유희(遊戱)와 같은 일상에 관한 모습들은 축약이나 생략 없이 장서각본과 유사하게 보여준다. 오히려 월성공주의 첫 출산 대목은 장서각본에 비해 고대본이 인물들의 행위와 심리를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사산을 한 차례 겪었던 공주의 출산을 걱정하는 현천린과 현부 인물들의 생각을 섬세히 드러내기까지 한다.

그런데 고대본이 남성들의 대외활동에 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략과 축약하고 있다하여 이를 곧 서사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대본이 취한 전략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사건의 생략과 축약으로 인해 전쟁담이나 파견담 부분은 사건 전개가 빠르지만, 가문 내에서 벌어지는 부부 갈등, 갈등으로 인한 심리 묘사, 일상에서 주고받는 회담과 유희, 편지글이나 제문의 내용 등은 장서각본의 내용을 유사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 서사의 진행에 긴박감을 주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또 다른 국문장편소설 <양문충의록>의 두 완질 이본 중 생략과 축약이 많이 일어난 이본이 서사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이를 보인 것과 변별된다. <양문충의록>은 현재 장서각본 32권 32책과 43권 43책, 두 종의 완질 이본이 전하고 있는데, 이 중 32권본이 43권본의 내용 중 작품의 기본 내용을 파악하는데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축약, 삭제하는 것을 통해 이야기의 빠른 전개와 선명한 내용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만들어졌음이 밝혀졌다.²⁹⁾ 이에 비해 고대본 <명주기봉>은 선별적으로 사건을 생략과 축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따라서 고대본의 생략과 축약의 방향은 남성들의 대외적 활약상 보다 가문 내에서 벌어지는 부부 생활과 일상의 모습에 보다 초점을 맞추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고대본이 현부의 번성과 영달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고대본 역시 전편 <현씨양옹쌍린기>에서 현택지, 현수문, 현경문 부자가 일군 가문의 영화를 이어 받아 서술을 전개하며, 여전히 현부의 아들과 사위들이 관직에 진출해 정사를 의논하고 공을 세워 그 명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남성들의 대외활동을 사건화나 장면화해서 길게 보여주기보다는 축약해 간략하게 보여주는 점은 고대본 필사자와 이 책을 향유했던 이들이 <명주기봉>의

29) 강미선, 앞의 논문, 54쪽.

전체 이야기 중에서도 특히 가문 내 이야기에 흥미를 더 느꼈던 이들이었음을 추정하게 한다.

이는 이 작품의 전편인 <현씨양옹쌍린기>의 여러 이본 중 연대본이 전체 내용을 생략하고 축약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명주기봉>의 전작인 <현씨양옹쌍린기>는 현재 낙질까지 포함하여 50여 종이 넘는 이본이 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⁰⁾ 이중 세책필사본으로 밝혀진 연대본은 <현씨양옹쌍린기>의 풍부한 서사와 비교했을 때 전쟁에서의 남성들의 활약을 대대적으로 축약해 여성인물들을 부각하는데 일조하도록 했음이 밝혀졌다.³¹⁾ 이처럼 특정 인물이나 내용을 부각하기 위해 작품의 전체 서사 가운데 특정 사건이나 장면을 생략하거나 축약하는 모습은 다름 아닌 고대본 <명주기봉>이 보여준 방식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고대본은 장서각본의 내용을 보여줄 때 선정적이며 자극적인 내용을 소략하게 다루면서 보다 예의를 중시하는 특징을 보인다. 고대본에서 남성들의 대외활동과 함께 생략과 축약이 대거 일어난 부분은 바로 악인들이 모해를 벌이는 부분이나 자극적인 행위와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이다. <명주기봉>은 현부 여러 자녀들의 부부 생활을 담은 작품으로, 이들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부부갈등을 빚는다. 좋아하는 남성의 애정을 얻고자 남성의 다른 부인과 갈등을 벌이는 부부, 장인이나 장모와 사위의 대립으로 인해 갈등하는 부부, 기질의 차이로 갈등하는 부부 등, 부부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채로운 상황들을 폭넓게 보여주는데 고대본 역시 이 같은 내용을 담아낸다. 그런데 고대본은 이 중 잔인하거나 선정적인 사건들, 강상윤리에 어긋난 일들을 대폭 생략하거나 축약한다.

우선 고대본은 악인들이 벌이는 모해 중에서도 특히 강상윤리에 어긋

30) 이다원, 앞의 논문, 3쪽.

31) 이다원, 앞의 논문, 67~74쪽.

나는 일들을 과감히 생략하거나 축약한다. 예컨대 고대본에서 생략이나 축약된 사마영주가 현웅린과 혼인하고자 그 부인이 된 친동생 사마예주를 모해하는 일이나, 위극의 첩 행운선이 위부에서 입지를 다지고자 그 아들 위중양을 모해하는 일들은 가족관계 안에서 벌어진다는 점에서 윤리에 어긋나는 일들이다. 더욱이 사마예주가 가유진과 사통(私通)해 실절(失節)한 것처럼 위조한다거나 위중양이 부친의 첩을 차지하고자 한 것처럼 오해받게 만드는 모해의 내용들 역시 가족질서를 해치는 범주에 해당하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윤리를 위반하는 일이라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대본에서 생략과 축약 되는 내용은 자극적인 모습이 강한 부분들이다. 고대본에서 생략이 일어난 현천린이 궁녀 소옥을 죽이는 장면, 사마영주가 나체로 현웅린을 끌어안는 사건, 위극이 난간으로 위중양을 구타하는 장면 등은 그 내용이 선정적이며 자극적인 부분들이다. 장서각본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보여주는데, 궁녀 소옥을 죽이는 장면은 월성공주를 꺾박하던 현천린이 제 성질을 못 이겨 칼을 꺼내 소옥의 목을 단칼에 벤 후, 피가 흐르는 소옥의 머리를 공주에게 던지는 것으로, 혼인의 구실을 만들고자 사마영주가 현웅린을 안는 일은 실성했다고 위장한 사마영주가 사마부에 방문한 현웅린 앞에 나체로 나타나 그 몸을 끌어안은 후 강하게 밀쳐내도 떨어지지 않은 채 엹혀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도 모자라 절단한 시신의 일부를 주위 사람에게 던지는 행위나 사대부가 여성이 대낮에 나신으로 나타나 외간남성을 유혹하고자 끌어안은 채 떨어지지 않는 모습들은 잔인하며 선정적이라는 점에서 자극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고대본이 악인들의 모해, 강상윤리에 어긋나는 일들, 잔인하고 선정적인 내용들을 과감히 생략하거나 축약하고 있는 점은 곧 고대본의 필사자가 장서각본의 내용을 담아낼 때 예의를 보다 중시하는 방향에 초

점을 맞추었기에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고대본이 장서각본에 비해 그 내용을 추가할 때 앞서 살펴본 태자의 현부 방문에서 장태부인이 의관을 갖추어 맞고 있는 것과 같이 예를 중시하는 내용들을 추가한 점이나 상소문, 제문, 초사와 같이 격식에 관련된 글들의 내용을 비록 자구는 다를지라도 축약 없이 유사하게 보여주는 점을 염두에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은 전편인 <현씨양옹쌍린기>에서도 발견된다. <현씨양옹쌍린기>의 여러 이본 중 조동일 A본은 다른 이본들과 달리 독특한 서술이 많이 나타난다고 밝혀졌는데, 남성주인공의 발화를 점잖게 변형시키거나 부부 간의 동침하는 상황에 대한 장면 묘사를 생략하고 은밀한 부부 간의 일을 서술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필사자가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³²⁾ 고대본이 보여준 생략과 축약의 의도 역시 잔인함이나 선정적인 부분들을 축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대본의 필사자나 향유자가 지나치게 자극적인 내용보다 점잖은 내용에 보다 흥미를 느꼈던 이들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장서각본과 비교했을 때 고대본이 보이는 특징은 인물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제공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급사나, 화정윤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고자 한다든지, 장시중 형제에 관한 소개와 작품 내 담당 역할에 대한 서술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분량이 장서각본에 비해 줄어든 상황에서 인물에 관한 정보를 보다 강화해서 서술했다는 점은 고대본 필사자가 방대한 국문장편소설에서 인물들 간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제시해주는 것이 독서 과정에서 유효한 일이라는 점이라고 여겼음을 짐작하게 하며, 현부 구성원이 아닌 제급사, 화정윤, 장시중 형제와 같은 주변 이들에게도 섬세히 관심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게

32) 이다원, 앞의 논문, 33~38쪽.

한다. 또한 이는 고대본이 세책본이라는 점을 염두에 본다면, 이처럼 인물에 대한 정보를 보다 자주 제시하는 것은 향유 과정에서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한 하나의 방법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고대본은 장서각본에 비해 서사가 풍부하지는 못하다. 오히려 생략과 축약이 상당수 일어나고 있다. 때문에 풍부한 서사를 고려했을 때, 장서각본을 <명주기봉>의 선본(善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과 장면이 생략, 축약되었다고 해서 곧 고대본이 가치가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다. 고대본은 사건과 장면을 생략, 축약하는 과정에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일정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고대본은 세계관에 있어 장서각본과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고대본 역시 상층 사대부 가문이라 할 수 있는 현세 가문의 번성과 영달을 보여주고자 하며, 사대부 가문의 여성이 부부 관계에서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입장들을 섬세하게 보여줄 지라도 그 해결은 가부장적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대본이 보여준 특징들은 이 작품을 향유했던 이들이 보다 선호했던, 흥미를 보여주었던 내용들이 무엇이었는지를 가늠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명주기봉>의 향유에 관한 기록들 가운데에는 선행 연구에서 현재 실물이 발견되고 있지는 않지만 동양문고본 세책장부에 <명주기봉>을 대출한 기록이 2회 등장하고 있어 이 작품이 세책점을 통해서 향유되었음이 지적되었다.³³⁾ 고대본 <명주기봉>이 동양문고본 세책장부에 이름을 올리고 대여해 간 이가 읽었던 <명주기봉>인지를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명주기봉>이 세책점을 통해 향유된 작품이라는 점과 고대본이 세책필사본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고대본 역시 세책점을 통해서 향유

33) 정명기, 「세책본소설의 유통양상 - 동양문고 소장 세책본소설에 나타난 세책장부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6집, 고소설학회, 2003, 80~82쪽.

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

고대본 <명주기봉>은 현재로서는 필사자나 향유자를 특정 짓기는 어렵다.³⁴⁾ 또한 고대본이 세책필사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더라도 필사기에 나타난 수문동을 세책점이 있던 곳으로 곧바로 단정 짓기는 조심스럽다. 현재까지 발견된 세책필사본들 가운데 필사기에 수문동이 제시된 작품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할지라도 수문동이 동양어학교본 <남원고사>를 대여해주었던 누동 세책점이나 연대본 <하진양문록>을 대여해주었던 묘동 세책점³⁵⁾의 인근에 있던 지역을 감안한다면 수문동 역시 세책점이 있었던 곳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세책점이 없었더라도 이 지역에서 필사되어 인근 세책점에서 대여가 되었을 확률이 높다고 여겨진다. 때문에 <명주기봉>은 장서각본의 모습으로 궁중에서 읽혔던 것뿐만 아니라 고대본과 같은 내용으로도 세책을 통해 조선후기 향유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이 글은 고대본 <명주기봉>의 이본으로서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현씨양웅쌍린기> 연작의 두 번째 작품인 <명주기봉>은 전편인 <현씨양웅쌍린기>와 함께 현재 전하는 이본이 여타의 국문장편소설의 이본에 비해 상당히 많은 작품이다. 때문에 국문장편소설의 향유의 구체적인 실상을 규명하는데 주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34) 이는 <명주기봉> 낙질본 가운데 고대본과 같은 계열의 작품이 있어서 그 필사기 등이 발견되거나 고대본이 필사된 수문동에 거주했던 이들의 면면에 대한 논의가 섬세히 이루어져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5) 이윤석·정명기, 앞의 논문, 72쪽.

<명주기봉> 고대본은 장서각본과 함께 완질로 전하는 이본으로, 그 분량은 장서각본의 78%에 해당하며, 서지적 특징으로 보아 세책필사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대본은 장서각본의 내용을 생략, 축약, 추가하는 과정에서 남성들의 대외적 활동에 관한 부분을 과감히 줄이고 가문 내에서 벌어지는 일상의 모습들에 집중하며, 잔인하고 선정적인 사건이나 장면들을 축소시키고 예를 중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변화를 꾀하였다. 이러한 지점은 고대본을 즐겨 향유하던 이들이 <명주기봉> 가운데 보다 흥미를 가지고 읽고자 했던 부분을 고려해 일어난 변화로 여겨진다.

현재 <명주기봉>은 장서각본과 고대본, 2종의 완질본 이외에도 24종의 낙질본이 발견되고 있다. 낙질본 역시 비록 향유되었던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는 있지만 그 유통방식과 향유된 내용의 실마리를 추정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귀한 자료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낙질본들의 내용을 파악하고 계열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될 만한 완질본 두 종의 면밀한 비교 검토는 꼭 필요하며 의미 있는 작업이랄 할 수 있다. 이러한 이 글의 논의에서 더 나아가 낙질본 24종을 아우르는 <명주기봉> 이본군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이 작품의 향유의 정황들을 보다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명주기봉> 장서각본 24권 24책.

<명주기봉> 고대본 22권 22책.

<현씨양옹쌍린기> 장서각본 10권 10책.

<명주옥연기합록> 영남대본 25권 25책.

강미선, 「<양문충의록> 연구」, 『고소설연구』 23집, 한국고소설학회, 2007, 36~67쪽.
강전섭, 「<언문칙목록> 소고」, 사재동 편, 『한국서사문학사의 연구』 V, 중앙문화사, 1995.

고은인, 「<명주기봉>의 애정 형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126쪽.
노정은, 「<소현성록>의 인물 형상화 변이 양상」,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4, 1~101쪽.

박은정, 「<명주옥연기합록>의 이본과 영남대본의 가치」, 『민족문화논총』 5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 105~133쪽.

_____, 「<옥환기봉> 연작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2008, 1~214쪽.

송성욱, 「<명주기봉>에 나타난 규방에 대한 관심」, 『고전문학연구』 7, 한국고전문학회, 1992, 378~404쪽.

심경호, 「낙선재본 소설의 선행본에 관한 일고찰」, 『정신문화연구』 13권 1호 통권 38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169~188쪽.

이나라, 「<명주기봉>에 나타난 가족 갈등과 그 의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71쪽.

이다원, 「<현씨양옹쌍린기>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0, 1~99쪽.

이영택, 「<현씨양옹쌍린기> 연작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214쪽.

이원주, 「고전소설 독자의 성향」, 『한국학논집』 3,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1975, 557~573쪽.

이윤석, 정명기, 「세책 고소설 연구의 현황과 과제」, 『세책 고소설 연구』, 혜안, 2003, 41~88쪽.

이지하, 「<현씨양옹쌍린기> 연작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1~93쪽.

_____, 「대하소설 속 친동기간 선악 구도와 그 의미」, 『한국문화』 63, 서울대학교

-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3, 339~361쪽.
- 이현주, 「<완월회맹연>의 이본현황과 서지적 특징」, 『어문학』 111, 한국어문학회, 2011, 193~225쪽.
- 정명기, 「세책 필사본 고소설에 대한 서설적 이해」, 『고소설연구』 1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1, 445~480쪽.
- _____, 「세책본소설의 유통양상」, 『고소설연구』 16집, 고소설학회, 2003, 71~99쪽.
- 조성운, 「조선후기 서울 주민의 신분 구조와 그 변화」,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1~234쪽.
-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1~907쪽.
- 차충환, 「<양문충의록>의 이본과 주변 작품과의 연계성」, 『국어국문학』 146, 국어국문학회, 2007, 411~441쪽.
- 최수현, 「<명주기봉>에 나타난 자매갈등의 형상과 그 의미」, 『어문연구』 16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4, 207~235쪽.
- 한길연, 「대하소설의 '일상 서사'의 미학」, 『국문학연구』 14, 국문학회, 2006, 125~149쪽.
- Kobyakova Uliana, 「<벽허담관제언록>의 이본 연구」, 『고소설연구』 30집, 한국고소설학회, 2010, 259~283쪽.

서울지명사전, http://culture.seoul.go.kr/ssgDic/ssgDic.do?_method=init

ABSTRACT

A Study on Different Versions in <Myeongjugibong>

Choi, Sue-hyu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features of the Korea university version, one of copies of different versions. As one of two completed different versions, the Korea university version includes omissions and abbreviations accounting for 78% of its total volume, compared with Jangseogak archives, one of another completed version.

However, it is evidenced that the Korea university version had been caused under some intention regarding its changing patterns, in consideration that such omissions and abbreviations in it mainly had focused on particular events or scenes.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although the Korea university version depicts the same contents as Jangseogak archives', this is found to take on a copy of different versions that lead to a considerable change in its letter patterns. Also, in consideration that the Korea university version is characteristic with an introductory explanation, it is anticipated that this is a work of a copy of rental books enjoyed in regions mainly Sumundong Area.

A discussion about the feature of such an Korea university version is significant in that this provides the specific status of this work relished and serves as a reasonable ground for the sequences of 24 copies of different versions of this work that are given as missing volumes.

Key Words <Myeongjugibong>, Copies of Different Versions, Long Novels in Korean, Abbreviations, Omissions.

논문투고일 : 2015. 11. 10
심사완료일 : 2015. 12. 3
게재확정일 : 2015. 12. 8